



제목	Из истории сатиры и юмора в турецкой литературе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Наука
발행일	1972.
저자	Маштакова Е.И.
출판도시	Moscow
페이지수	156
ISBN 또는 ISSN	

내용 요약

페리트 오고렌(Ferit Öngören)은 『터키 문학 속에 나타나는 풍자와 유머의 역사』를 출간하면서 유머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지표로써 “사회 의 억압이 강해지고, 사회적 위기가 심각해지면 민중은 유머작가를 앞으로 내세운다. 한 나라를 이해하는데는 유머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 희극의 대가인 아 지스 네신은 사회 속에서 풍자와 유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재자와 폭군들은 유머를 두려워한다. 유머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무시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도 자신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이다.”

풍자는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풍자는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과장, 왜곡, 비꼬는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작품 속에서 풍자를 이용할 때는 현실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진 주인공이나 사회를 우스꽝스럽게 그림으로써 그 대상을 비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는 항상 구체적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터키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진리가 내포된 풍자는 항상 위협적인 무기였다.

본 책은 터키 문학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형성한 14세기부터 새로운 요소가 가미되기 전인 17세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풍자와 유머의 발생과 발전, 특징 등의 중세 터키의 풍자와 유머의 역사에 관한 연구서이다.